
기획논문 1

러시아 10월 혁명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러시아 10월 혁명을 현장에서 목격한 영국의 저널리스트 존 리드는 혁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볼셰비즘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별도로, 러시아 혁명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었음을, 또 볼셰비키의 등장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1991년 말 소비에트연방이 세계무대에서 공식적으로 퇴장한 이후 철의 장막이 걷히고 제국의 민낯이 드러나자, 우리가 본 것은 낙후된 러시아의 현실과 퇴색한 이념의 잔재들이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알팍한 불신, 그리고 제정 러시아 시대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의해 러시아 10월 혁명은 러시아인들에게나 외부인들에게나 이 거대한 제국을 그 정당한 발전의 궤도에서 이탈시킨 ‘모험’이거나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의 볼셰비키에 의한 역사적 폭력에 불과했던 것이라 치부되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오랜 체제와 관습을 통째로 갈아엎는 혁명이 다만 단시간에, 소수의 힘으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인용한 리드의 말처럼 러시아 혁명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프랑스 혁명이 계몽사상으로 촉발된 근대적 각성의 소산이었던 것처럼, 러시아 혁명 역시 오랜 역사를 거쳐 공동체적 삶을 체화한 러시아인들이 근대적 의식을 마주하며 이루어낸 역사적 선택이었다. 이들은 전제주의의 억압과 거대한 영토를 아울러 통치할 능력이 없는 태만한 차르 권력에 대항하여

마침내 정의, 평등, 자유라는 오랜 혁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혁명은 러시아 민중 스스로 선택한, 구태의연하고 악한 과거에 대한 ‘불의 응징’이었다.

10월 혁명은 러시아의 오랜 역사에 걸쳐 이룩한,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치열한 지적 사유의 결과물이다. 또한 10월 혁명은 역시 러시아 역사에서 일어났던 끊임없는 혁명의 시도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다. 그것은 가장 가까이 볼 때, 민중으로부터 유리되었던 1825년 데카브리스트 혁명이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 이후 두 세기에 걸쳐 민중 스스로 일구어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848년 혁명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한편으로는 비슷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양상으로 각기 혁명을 겪었지만, 유럽 어디서든 20세기 초 러시아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민중의 집단이 혁명의 이상을 위해 같은 길로 움직여간 예는 없었다. 러시아 혁명의 가장 큰 의미는 그가 지식인이었던 농민이었던 군인이었던 자유와 해방, 평등과 정의라는 혁명의 이상에 관해 평범한 한 인간이 공감하고 참여했다는 사실에 있다. 러시아 혁명은 19세기부터 이미 모습을 드러낸, 20세기 이후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 즉 ‘대중’이 정치사회 구조에 직접 개입하고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투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 한 시도인 것이다. ‘대중’과 정치의 이와 같은 결합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점진적이지만 확실히 진행되어 왔음을, 그러므로 19세기가 ‘혁명의 시대’였음을 이해한다면 러시아 혁명의 의미를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러시아 10월 혁명을 알지 못하고 20세기와 대중의 시대를 아는 일이란 불가능하다.

볼셰비즘 자체의 정치적 성패 혹은 혁명 이후 레닌의 정치적 투쟁, 스탈린의 공포 정치 등에 관한 논의는 이상에 관한 사유가 현실로 이식될 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으로 아마도 보다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인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문학자로서 우리 집담회의 혁명에 대

한 학적 관심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운동이 자유와 해방, 평등의 이상을 통해 현실의 삶을 변혁할 가능성을 믿고 그것에 관해 사유한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갔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수백만, 수천만, 아니 그 이상의 숫자의 평범한 인간들이 각각 내면적으로 혁명을 체화하고 실현하려 했던 노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러시아 혁명은 볼셰비키라는 정치적 집단의 봉기에 의해서도, 레닌이라는 야망에 찬 정치가의 영웅적 행위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센 폭풍, 세상을 휩쓰는 불과 같은 혁명의 운동은 평범한 한 인간이 자신이 사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폭발했고 그 스스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능동적 의지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볼셰비키와 레닌을 낳은 것은 러시아인들의 내면에서 자라난 이와 같은 혁명의 정신이다.

우리 집담회는 러시아 10월 혁명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 10월 혁명은 어떻게 태어났는가”이라는 기획 하에서 러시아 10월 혁명을 정치적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세기말 러시아의 사상적이고 이념적 사건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는 혁명을 태동한 19세기 러시아 사상의 궤적을 추적해볼 것이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후기 소설들은 혁명의 전사를 배경으로 한다. 즉 이 작품들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치닫는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사회 안에 놓여있다. 연구자는 혁명에 관한 이상, 즉 이른바 ‘보다 높은 현실’ 속에서 그려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혁명 운동가적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혁명의 이상이 어떻게 준비된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자 1은 러시아 혁명에 관한 최고의 문학적 기념비로 평가되는 서사시 「열둘」을 통해 세계를 태우는 거대한 변용의 불로서 혁명을 이해했던 시인 알렉산드르 블로크의 혁명관을 짚어본다. 세기말 러시아 지식인들은 무엇보다 러시아의 파국과 더불어 재생을 예감했고 혁명은 그 예감

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가져온 현실적 재앙은 지식인들을 절망하게 했다. 이때 블로크는 파괴와 죽음으로부터 생성과 메타모르포시스로 전화하는 양가적인 불의 상징을 통해 10월 혁명을 사유함으로써 혁명의 정당성과 의미를 확보했다. 죽음과 파괴가 부활과 재생을 필연적으로 견인하게 되는 양가적 세계관을 함의한 불의 상징을 통해 블로크는 러시아 지식인들의 혁명에 대한 의무를 설득하였다.

연구자 2는 사회주의 유토피아 문학의 대표작으로 생각되는 보그다노프의 소설 『붉은 별』을 통해 작가의 정치적 사유를 살펴볼 것이다. 『붉은 별』은 레닌의 혁명론에 대한 안티테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볼셰비키식 혁명은 결국 파국에 도달할 것이란 항의를 담는다는 점에서 은폐된 논쟁에 가깝다. 보그다노프는 혁명의 완결 이후 볼셰비키의 관료화와 정치권력의 타락을 경계하였다. 이는 동지애라는 감응적 관계를 통해 혁명이 보완되지 않으면, 유토피아는 또 다른 제국주의적 권력으로 변화할지 모른다는 문제제기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그다노프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론에 대한 사유를 『붉은 별』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 3는 한때 마르크스주의자였다가 마르크스주의와 유토피아론, 사회주의의 강력한 비판자로 전향한 베르다예프가 혁명을 어떻게 사유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베르다예프는 1905년 혁명과 1917년 10월 혁명을 러시아의 운명, 러시아의 이념과 함께 사유했다. 20세기 초는 서구를 뒤따라가던 러시아의 예술과 문화, 사상이 서구를 넘어서 화려하게 꽃핀 ‘은세기’이자 동시에 사회, 정치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면서 혼란스러웠던 ‘혁명의 시기’였다. 베르다예프는 러시아 혁명을 사회정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역사철학, 종교철학의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이때 비판의 준거가 되는 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인격, 자유, 창조의 개념이다.

현실정치에서의 오류와 유토피아적 비전의 극단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적 해방과 자유, 보다 사회적 삶에 대한 설계를 표방한 혁명의

이념과 실천은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서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될 철학적, 사회적 교훈을 보유하고 있었다. 혁명의 이념은 19세기 이후 급속히 질주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 의해 조작된 편향적 범주들에 의해 소외되어가는 인간에게 개인과 공동체, 물질과 정신, 앎과 실천 사이의 균형 잡힌 삶을 일구어주며 물질문명이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높고 정신적인 삶의 비전을 회복하려는 반성적 사유의 소산이다.

근대화의 시기 우리 의식 깊숙한 영향을 주었던 10월 혁명에 관한 정당한 해석과 평가는 우리 현실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 10월 혁명의 움직임은 서구 열강의 강점으로부터의 독립 및 사회정치적 근대화라는 어려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있던 20세기 초 우리의 노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우리 지식인들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 사회개혁을 구상했다. 그러므로 혁명의 역사와 의미에 관한 보다 깊숙한 연구는 무엇보다 역사 속에서 세계체제의 가장 복잡한 지형 속에 자리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우리 역사와 현실에 관한 사유를 소환하게 될 것이다.

박종소

